

## 수업의 내실화와 교수강의 평가

최 경 환 | 부산외대 국문학과 교수

우리 나라 대학에서도 수년 전부터 학생에 의한 교수 강의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교수강의 평가제도는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미국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상당한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미국 대학에서조차 그 제도의 폐단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이 선생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관이나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당시 필자는 교수강의 평가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소 공감을 가지면서도 과연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 수업의 내실화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졌었다. 취지에 대해 다소 공감을 가졌다는 것은 강의실에서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통해 또는 동료 교수들이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 대학 수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수업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교수의 당연한 직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교수의 양식에 맡길 따름이지 왈가 왈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주변 교수들의 주장도 원론적으로

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업의 부실화가 전적으로 교수의 양식에만 일임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면, 교수의 양식 이외에 수업의 부실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은 있다.

수업의 부실화는 오직 교수에 의해서만 초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교수의 책임이 크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다. 수업의 부실화는 바로 학생들이 손쉽게 학점을 취득하려는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학생들이 출결 점검을 엄격하게 하고 과제를 많이 부과하거나 시험을 자주 보는 교수들의 강의 즉, 학습량은 많으면서도 학점은 그리 후하게 주지 않는 교수들의 강의를 외면하고, 반면 수업 부담은 적으면서도 학점을 잘 주는 교수들의 강의를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양식에 따라 가르치는 일에 열성적으로 임하는 교수들이 간혹 학생들에게 자신의 강의가 외면당하는 상황을 접하고서 심한 회의감과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는 말이 대학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필자가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 평가를 통해 수업의 질을 제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졌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학점 취득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보여 주었던 성향 때문이었다.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여타의 방안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 미국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 평가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수업의 부실화에 주요 역할을 하였던 학생들로 하여금 강의 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수업의 내실화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강의 평가의 참된 취지를 이해하면서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필자는 수업의 내실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교수의 강의 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이다. 교수의 강의 수준과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상호 긴밀한 관계를 보이지만, 그 관계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교수가 비록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 열성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강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그 수업의 내실화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수의 강의를 학생의 학업 성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학업 성취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오히려 학생 본인의 학구열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에 학생들의 성취도는 교수의 강의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학구열이 더욱 촉진되거나 저하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에게 강의 내용이나 방법 등의 차원에서 수준 높은 강의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업 성취를 위한 학생의 진지한 노력은 무엇을 통해 촉진되는가? 필자는 교수가 부과하는 과제나 시험 등에 의해 촉진된다고 본다. 과제나 시험은 한편으로 학생

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학생들은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자기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수는 수준 높은 강의를 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과제와 시험을 빈번하게 부과해야만 한다.

과제를 많이 내주거나 시험을 자주 보는 것은 사실 교수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부담이 된다. 교수의 강의를 도와 주는 조교가 없으면, 교수가 직접 과제물을 점검하거나 시험지를 채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생들은 과제를 많이 내주거나 시험을 자주 보는 교수들의 강의를 기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수들은 과중한 부담과 학생들의 성향을 의식하여 과제를 적게 부과하거나 아니면 전혀 부과하지 않고, 또 시험도 한 학기에 기껏해야 두 번 정도 본다. 그러다 보니 과중한 부담과 학생들의 성향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과제를 많이 부과하거나 시험을 빈번하게 보는 교수들의 교과목은 손쉽게 학점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기피 과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를 평가한다고 할 때, 교수들이 과연 학생의 성향을 무시하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과제를 많이 내주거나 시험을 자주 볼 수 있으며, 또 학생들은 과연 과제를 많이 내주거나 시험을 자주 보는 교수의 강의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부산외국어대학에서는 올해부터 교수강의 평가 결과를 점수화 하여 교수의 교육 업적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였다. 교수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강의 평가 실시 여부만을 점수화 하여 교육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강의 평가 결과는 단지 교수들이 참조하게만 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이와 같은 시행은 분명히 진일보한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결

정을 내릴 때 부산외대 교수들이 그리 심하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교수강의 평가제에 대한 반응이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수년 동안 강의 평가를 실시해 본 결과, 시행 당시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강의 평가가 강의 개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교수들로서는 강의 평가에 적지 않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교육 업적 평가에 강의 평가 실시 여부만을 반영하던 강의 평가 결과를 점수화 하여 반영하든, 학생들에 의해서 자신의 강의를 평가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지 않는 교수들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교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교수들이 강의 평가 항목을 염두에 두고 강의 준비를 하거나 강의에 임하곤 한다.

일례로 예전에는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강의 계획서를 배포하지 않고 다만 형식적으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던 교수들도 강의 평가를 의식하여 체계적으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강의 첫 시간에 배포하게 되었다. 체계적인 강의 계획서 작성은 사전에 수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만 가능하고, 또 철저한 수업 계획 수립은 강의 준비가 충분히 된 다음이라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강의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강의 첫 시간에 배포하게 하는 것은 교수로 하여금 사전에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휴강률도 이전보다는 낮아졌으며, 교수 개인 사정으로 휴강을 하였을 경우에 보강을 하는 비율도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강의 내용을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 개발과 교수법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교수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다.

이와 같이 많은 교수들이 강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강의 평가제 실시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강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교수들의 노력만큼 수업이 내실화 되었느냐 하면, 실망스럽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짧은 기간 동안에 금방 효과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험을 통해 측정해 볼 수 있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상에서 별다른 변화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강의 평가제를 시행한 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의 비율이 이전보다 증가하였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강의 평가제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열심히 공부하였고,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강의 평가제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이 초래된 까닭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지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교수들의 강의가 아직은 방법과 내용 등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의 학구열을 촉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강의 평가제 자체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당연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만약 첫번째 관점이 타당하다면, 교수의 충분하지 못한 강의 수준이 학생들에 의해 강의 평가상에 반영되어야만 하고, 또 교수들에게 피드백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로 강의 평가상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 지난 '99년도 2학기에 실시한 강의 평가 결과와 총학생회에서 올해 조사한 강의 평가제에 관한 학생 여론 조사 결과를 예로 든다면, 이러한 사실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우리 대학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수들의 강의 평가 평균 점수는 5.0 만점에 4.12점이다. 또 평가 항목 중 교수의 강의 준비와 강의할 때의 열성의 정도를 묻는 '교수는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열의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였다'라는 항목의 평균 점수는 4.21점으로 나타났다. 이

에 비해 학업 성취를 위한 학생들의 노력 정도를 묻는 '나는 본 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항목의 평균 점수는 3.91점 이었다. 이와 같은 점수들로 미루어 본다면 학생들이 보는 교수들의 강의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해 본 자신들의 노력의 정도도 그리 나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과제물이나 시험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느끼거나, 또 동료 교수들로부터 전해 듣는 학생들의 노력의 정도는 그보다 훨씬 낮다. 물론 교수가 교수 자신의 강의 수준이나 학생들의 노력 정도를 보는 관점과 학생이 교수의 강의 수준이나 학생 자신의 노력 정도를 보는 관점은 반드시 일치할 수 없고, 또 일치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필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강의 평가 결과로 제시된 수치와 교수 또는 학생이 수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다른 무엇보다도 강의 평가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그리 충실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총학생회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강의 평가서 문항에 충실하게 답변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한 학생 총 1,309명 중에 '충실하다'가 826명(전체의 63.10%), '불충실하다'가 264명(20.17%), 그리고 '관심 없다'가 219명(16.73%)으로 나와 있다. 강의 평가서 문항에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37%나 된다는 점에서 위에 제시한 전체 교수들의 강의 평가 평균 점수는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종강하는 시간에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각각 평가한 강의 평가표들을 살펴보면, 건성으로 평가하거나 심지어는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 문항 전부에 대해 최하점 또는 최

상점과 같이 동일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의 평가가 부실하게 된 요인은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교수의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 조교를 시켜 대신 평가표를 작성하게 하는 교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학생과 교수의 야합(?)에 관한 이야기도 적지 않게 들려 온다. 주로 보충 강의와 관련된 것인데, 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휴강을 하였을 경우 보충 강의를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강의 평가를 할 때 보충 강의를 한 것으로 하겠으니 보충 강의를 하지 말자고 하면 교수는 마지못한 듯이 이에 동의하면서 보충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교수의 강의 수준이 강의 평가 상에 여실히 반영될 수도 없고, 또 교수들은 강의 평가 결과를 통해 자신의 강의를 피드백 할 생각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점은 강의 평가제 자체가 갖는 문제점이 아니라 강의 평가제의 운영상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부산외대에서도 이번 학기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학생이 성적을 열람하기 전에 직접 해당 과목에 대한 강의 평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교를 시켜 평가표를 대신 작성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강의 평가제를 시행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 평가제의 취지나 평가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적도 없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성의 없이 평가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전체 학생들에게 학교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기 어렵다면 유인물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시키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관점은 강의 평가제 자체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적합한 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수는 수준 높은 강의를 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과제와 시험을 빈번하게 부과하고, 또 평가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강의 평가의 주체가 학생이 되고 객체가 교수가 되는 상황에서 교수가 과연 학생들이 손쉽게 학점을 취득하려는 성향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강의 평가제가 교수의 강의 개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강의 평가제 시행이 거역할 수 없는 추세라면,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업 내실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에 있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의 평가제와 병행하여 따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 때 적어도 학생으로 하여금 손쉽게 학점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

---

#### 최경환

서강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문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부산외국어대 국어국문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논문으로는 “한국 제화시의 진술 양상 연구” 외 다수가 있다.